

#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eju Women's Social Education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고 보 선

Dept. of Social Welfare, Cheju Colleg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 Koh, Bo-S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eju Women's Social Education to improve social educ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a stratified sample of 1,447 women in Cheju. Frequency, percentile, mean,  $\chi^2$ , t-test, one-way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resulted in five major finding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had a experience of social education. The motive of participation was to adapt oneself to new social circumstances. The respondents satisfied with social education. But, the discontented person pointed out level of lecturer. The respondents required so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each social education for licences. They preferred teaching practice to theory.

This study will be a primary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ograms which are aimed at enhancing women's abilities and rol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 I. 서론

사회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연장을 의미하는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

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교육은 사회구성원에게 평생교육의 바탕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의 적응 및 참여의 유도를 통해 사회구성원 자신의 자질향상, 자기충족,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더불어 사회발전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사회로 만드는 데 있다. 개인이 '삶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기능적 차원에서 개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상태이며,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상태이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다. 즉,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성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성발전은 세계화, 정보화, 기술화된 미래의 최첨단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자신이 전통사회의 여성관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아를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의 여성사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타 지역의 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활동이 활발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 사용하였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차별화가 적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낳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사회가 요구하는 역동적인 사회인 양성을 위한 목적과 교육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여성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의 보편성으로 기관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이로 인하여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통한 자료 및 정보교환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정보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내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도내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흡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점을 드러내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개발원에서는 1986년부터 강사은행을 지역별로 확보, 확대시키는 작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제주도는 1998년 10월에 강사은행이 비로소 발족되었다. 그러나 강사은행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수혜자 요구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사회교육의 실태와 교육 수혜자의 요구 분석은 현재 도내 여성사회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교육 수혜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사회교육의 전문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참여 실태와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여성사회교육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내의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적 특성

#### 1) 인구구성

제주도의 출생성비<sup>1)</sup>를 보면, 1980년에 101.3에서

1)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1990년에는 118.7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나, 그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1997년의 출생성비는 110.3이 되었다. 연령계층별로 남녀인구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 연령층에서는 남성인구가 더 많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인구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 결과 50-54세 연령층(성비 101.0 : 199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아지는 구조를 보였다(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1995년 제주도의 노령화지수는 28.7%로 전국에 비해 6.1%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북제주군으로 67.0%였으며, 그 다음은 남제주군 44.7%, 서귀포시 25.8%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시로 16.6%이었다. 여성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1995년 여성인구의 43.0%가 유배우자이고, 미혼이 21.3%, 그리고 사별 및 이혼 인구가 13.4%이었다.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유배우자의 경우는 4.4% 낮은 비율이며, 사별 및 이혼인구의 구성비는 2.3% 높은 비율이다(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 2) 교육

제주도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 8.0년, 1990년 9.1년에서 1995년 9.7년으로 5년 주기로 평균 0.8년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평균인 10.3년에 비해 낮은 수치로, 이는 여성의 낮은 평균 교육년수에 기인하였다. 즉, 남성의 평균 교육년수 11.1년은 전국의 11.2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전국 9.4년에 비해 0.9년 정도 낮은 8.5년의 교육년수를 보였다. 학력분포를 보면, 1995년 제주도 남성인구의 42.8%가 고졸, 23.8%가 대졸이상인 것에 비해, 여성은 43.8%가 초졸 이하, 30.8%가 고졸, 대졸 이상은 10.2%에 불과하였다(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교육기회의 미충족률을 보면, 1996년 여성이 84.3%로 남성의 75.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남녀 각각 64.2%와 5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은 부모의 사고방식이 25.4%, 남성은 시험의 실패 19.1%로 나타났다(제주

여성통계연보, 1998).

## 3) 경제활동

1997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9%이며, 여성은 60.0%이었다. 연령별로는 15-19세 연령층은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반면 2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4.0%와 48.9%로 전국 평균 참가율 55.7%와 30.2%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졸 이하 56.8%, 고졸 57.6%, 전문대졸이상 80.8%이며, 남성은 각각 64.7%, 80.7%, 94.7%로 남녀모두 고학력일수록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 48.1%, 기혼 63.9%로, 기혼이 미혼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았다(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997년 여성취업자의 34.4%는 농림어업, 3.2%는 광·공업, 그리고 61.6%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에 종사한 반면, 남성취업자는 농림어업 29.9%, 광·공업 4.7%, 산업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65.3%에 분포되어 있었다. 즉 제주도의 남녀취업자는 3차 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여성은 1차 산업에, 남성은 2차 산업에 많이 분포하였다(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 2. 제주도여성사회교육기관 현황

1999년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46개 기관을 공공기관,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 여성단체, 사회복지관, 대학부설사회교육원, 민간단체, 언론 및 금융기관 등의 8개 범주로 구분하여 제주도여성사회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기관 현황과 교육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1999).

### 1) 기관 현황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21.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부 17.9%, 농림부와 여성특별위원회 10.7%, 노동부 7.2%,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시청이 각각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부서가 없는 사회교육 기관이 7.1%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문화관광부와 농림부가 각각 22.7%로 다른 관련부서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의 관련부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특별위원회가 각각 40.0%, 노동부가 20.0%의 분포를 보였다.

기관 대표의 성별은 남성이 71.7%로 여성 28.3%보다 많았으며, 남녀비율이 2.5: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민간단체는 각각 남성이 기관 대표인 경우가 94.1%, 75.0%, 77.8%인 반면,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과 여성단체는 모두 여성이 기관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33.3%, 교육부 16.7%, 비등록 16.7%였다.

설립 시기는 1991년 이후가 47.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1981-1990년 23.9%, 1951-1960년 13.0%, 1961-1970년 6.5%, 1950년 이전과 1971-1980년 각각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1950년대, 1980년대에 설립된 기관이 각각 29.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과 민간단체는 1991년 이후 설립이 각각 66.7%, 88.9%, 그리고 대학부설사회교육원은 모두 1991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1980년대 설립이 50.0%, 1950년대, 1970년대, 1991년 이후에 각각 16.7%로, 여성단체는 여성사회교육이 시작되던 시기인 1980년대에 많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 현황

교육 대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84.8%로, 여성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기관 15.2%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과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였다.

연간 수용 가능한 교육인원은 1001-5000명이

30.4%, 101-500명 23.9%, 10001명 이상 21.7%로 나타났다. 연간 실제 교육인원은 101-500명, 1001-5000명 각각 30.4%, 10001명 이상은 13.0%였다.

교육 목적은 전통문화보급 및 지역문화 확립,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사회교육기반조성이 각각 15.5%로 다른 교육목적에 비해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능력향상교육 13.8%의 분포를 보였다. 즉, 과거 여가·교양·취미교육 위주의 사회교육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교육목적은 여성능력향상교육,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선용이 각각 15.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은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기회확대가 60.0%, 여성능력향상교육이 40.0%로,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부설사회교육원은 사회교육기반조성이 83.3%로, 도내 사회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교육목적은 전통문화보급 및 지역문화확립이 75.0%로, 지역 내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인식, 보급시켜 지역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을 볼 수 있다. 언론기관과 금융기관은 교양 및 정서함양을 교육목적으로 하였다.

## 3)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인식

1997년 제주도여성문화센터에서는 6개 분야에 대한 제주여성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제주여성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1997).

사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9%로 나타나 사회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6.0%에 달하였다. 사회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부족인데,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사회교육수강 및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거주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남제주군에서는 취미교육의 비율이 높고, 북제주군의 경우는 교양교육이나 직업기술교육의 비율이 높았다. 가장 시급한 사회교육은 여성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자녀·가정교육에 관한 내용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 3. 여성사회교육

#### 1) 개념

여성사회교육의 개념은 사회교육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 개념적 접근방식은 교육 대상, 교육 담당자, 교육과정, 교육체제 등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개념적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첫째, 교육 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에 있어 사회교육은 누구든지 다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학습 대상의 전체성과 광역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그 이질성과 다양성에 기초하여 모두 평등하게 사회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 담당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교육은 교육 대상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의 확산을 그 특성으로 한다. 즉, 학교교육과 달리 사회교육은 교사의 개념이 아닌 교육 촉진자나 교육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증시된다. 따라서 교육 담당자는 사회교육의 기획과 프로그램의 실행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정규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교육적 요구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된다.

넷째, 교육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교육은 중앙집권형의 행정조직 체제가 아니라, 지역 중심 및 기관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교육부가 일괄 주도하는 하향식 조직체제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회교육은 교육부의 예도 공무원 교육은 행정자치부, 직업교육은 노동부, 여성교육은 여성특별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사회교육을 관장하게 되는 다원체제를 지닌다.

따라서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들의 의식향상과 그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유형

여성사회교육을 내용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여성의식, 직업·기술, 교양·여가 교육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 (1) 여성의식 교육

여성의식 교육은 여성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뚜렷한 남녀평등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가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확고한 남녀평등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여성의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강의,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상태에서 교육대상 집단의 확대와 교육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교육대상은 사회활동 관련 지도자에서 일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 여성 지도자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재

를 통해 남성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상태에서 직접적인 교육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 (2) 직업·기술 교육

1970년대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함께 노동자와 기술자 양성의 필요에 따라 직업기술훈련이 활성화 되었던 반면, 1980년대에는 기업체내 교육이 활성화 되어 보다 다원화되고 전문 교육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유형으로는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훈련, 기업체내 훈련, 여성단체 및 여성회관 등에서의 기술 보도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여성단체와 여성회관에서의 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사업은 교양·여가 교육에서 함께 다루어졌다. 그 이유는 첫째, 직업훈련소와 같이 과정수료후 자격증이 부여되거나 취업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취미교육과 내용이 유사하여 수강 대상자의 기준에 따라 직업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교양·여가 교육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됨에 따라 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교양 및 여가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교육이 크게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교양·여가 교육이 여성사회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그 참여인원수나 교육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다. 직업·기술 교육에서 남성 참여율이 높은 반면, 교양·여가 교육은 여성대상의 성격이 뚜렷하고, 다양하여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

교양·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여성단체 부설 교육시설, 정부산하 복지시설(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등),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초·중등학교 산하 주부교실, 지역사회시설, 도서관 부설, 사설강습소, 언론기관 및 산하 문화센터 등이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의 참여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여 교육 수혜자 중심의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의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sup>2)</sup>. 조사기간은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최종분석자료는 1,445부이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성사회교육 참여 실태,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교육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분포도

조사지역	N(%)
제주시	801(56.8)
서귀포시	235(16.7)
북제주군	237(16.8)
남제주군	137( 9.7)
계	1410(100)

1) 여성사회교육 참여 실태 척도

① 사회교육 참여

사회교육 참여 여부와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사회교육 참여 경로

사회교육 참여 경로는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 '친구 또는 친지 등의 권유에 의한 참여', '직장 또는 단체에 의한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다.

③ 사회교육 참여 동기의 우선 순위

사회교육 참여 동기의 우선 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④ 사회교육 만족도

사회교육 만족도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강사의 전문성, 시설, 비용, 모임 횟수,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⑤ 사회교육 불만족 이유

사회교육에 불만족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12개 내용을 제시하여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⑥ 사회교육의 효과

사회교육의 효과는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 성취감 및 자신감,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사람 사귄, 즐겁다, 적극적인 삶, 인간관계의 원만함, 사회에 대한 시야의 확대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교육에 대한 효과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요구 척도

① 교육 요구 우선 순위

교육내용을 시사 및 교양교육, 직업기술교육, 여

가취미교육, 자격취득교육, 기초교육, 그리고 여성의 식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우선 순위를 알아보았다.

② 교육 요구 기관 우선 순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교육내용 영역별로 우선 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③ 향후 사회교육 참여 여부

앞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혀 원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절실히 원한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사회교육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척도

① 교육 방식

교육 방식은 강의위주, 토론 등 참여중심, 강의와 토론의 적절한 병행, 실습위주, 현장참관위주 등 5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② 교육 시간

교육 시간은 1주일에 한 번, 1주일에 두 번, 1주일에 세 번 등으로 구성하였다.

③ 교육 후 인정

교육 후 인정은 학교졸업장과 동일한 자격 인정, 자격증, 수료증, 교육받는 것으로 만족 등으로 구성하였다.

④ 교육정보 전달 방식

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우편, 방송매체, 신문광고, 지역정보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⑤ 교육 후 지도 유형

교육 후 지도 유형은 정기적인 모임, 일정 주기의 특강, 사회교육기관(단체)의 소식지, 심화과정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결혼상태, 가족운수, 거주지역, 학력, 취업여부, 가계 소득 등이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2$ , t 검정,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sup>+</su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을 보면, 20대 48.4%, 30대 29.6%, 40대 16.5%, 50대 이상 5.5%이며, 평균 연령은 30.76세이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 46.0%, 기혼 54.0%로 조사대상자 중 기혼의 분포가 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47.2%, 고졸 이상 52.8%로 고졸 이상이 약 6% 정도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13.28년으로 응답자는 고졸 이상의 평균 교육수준을 보였다<sup>4)</sup>. 취업여부를 보면, 취업 60.1%, 비취업 39.9%로 약 20% 이상 취업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가계소득을 보면, 301만원 이상 4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01-200만원 26.3%, 100만원 이하 16.1%, 201-300만원 1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계소득은 203.87만원이다. 거주지역의 분포를 보면, 제주도 56.8%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북제주군과 서귀포시가 각각 16.8%와 16.7%로 비슷한 분포를, 그리고 남제주군은 9.7%의 분포를 보였다.

#### 2. 사회교육 참여 실태

##### 1) 사회교육 경험 여부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는 <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N(%)
연 령	20대	699(48.4)
	30대	428(29.6)
	40대	238(16.5)
	50대 이상	80( 5.5)
	계	1445(100) 평균 30.76세
결혼상태	미혼	637(46.0)
	기혼	748(54.0)
	계	1385(1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654(47.2)
	고졸 이상	731(52.8)
	계	1385(100) 평균 13.28년
취업여부	취업	787(60.1)
	비취업	523(39.9)
	계	1310(100)
가계소득	100만원이하	233(16.1)
	101-200만원	380(26.3)
	201-300만원	145(10.0)
	301만원이상	687(47.5)
	계	1445(100) 평균 203.87만원
거주지역	제주시	801(56.8)
	서귀포시	235(16.7)
	북제주군	237(16.8)
	남제주군	137( 9.7)
	계	1410(100)

2)에 제시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61.7%,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8.3%로, 도내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 여부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결혼상태, 가계소득,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 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은 참

3) 1998년 미혼 18.7%, 기혼 81.3%(제주도통계연보, 1999).

4) 1998년 고졸 미만 85.2%, 고졸 이상 14.8%(제주도통계연보, 1999).

5) 1998년 취업 62.8%, 비취업 37.2%(제주도통계연보, 1999).



여 경험이 없는 비율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중 20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의 여성들에 비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들은 '경험 없다'가 52.8%, 기혼 여성들은 '경험 있다'가 58.9%로, 기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보다 사회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을 보면, 가계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와 301만원 이상의 경우는 사회교육에 참여 경험이 없는 비

율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200만원과 201-300만원의 경우는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수준 중 301만원 이상에서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 있는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교육에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이 사회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사회교육에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보다 더 많았다. 거주지역 중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보다 사회교육에 참여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교육참여 경험

변 인	구 분	N(%)
사회교육참여 경험	경험 있다	877(61.7)
	경험 없다	545(38.3)
	계	1422(100)

2) 사회교육 불참 이유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 경험 여부

사회인구학적 변인		경험 있다N(%)	경험 없다N(%)	$\chi^2$
연 령	20대	368(42.0)	319(58.5)	72.69***
	30대	256(29.2)	167(30.6)	
	40대	198(22.6)	38( 7.0)	
	50대 이상	55( 6.3)	21( 3.9)	
결 혼 상태	미혼	344(41.1)	279(52.8)	17.99***
	기혼	493(58.9)	249(47.2)	
교 육 수준	고졸 미만	394(47.0)	250(47.6)	.047
	고졸 이상	444(53.0)	275(52.4)	
취 업 여부	취 업	464(58.7)	313(62.9)	2.24
	비취업	327(41.3)	185(37.1)	
가 계 소득	100만원 이하	132(15.1)	97(17.8)	10.07**
	101-200만원	238(27.1)	136(25.0)	
	201-300만원	104(11.9)	40( 7.3)	
	301만원 이상	403(46.0)	272(49.9)	
거 주 지역	제 주 시	457(53.7)	332(61.8)	14.06**
	서귀포시	161(18.9)	71(13.2)	
	북제주군	140(16.5)	93(17.3)	
	남제주군	93(10.9)	41( 7.6)	

주) \*\* P<.01; \*\*\* P<.001.

면, <표 4>와 같다.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38.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2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18.5%, '직장생활과 양립하기 힘들어서'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사회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여성들이 사회교육을 받는데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고 수강이 가능한 시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교육이 있는지 몰라서'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사회교육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의 경우는 사회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도내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통하여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사회교육 참여 동기

사회교육에 참여 하고자 하는 동기를 우선 순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사회교육 참여 동기의 우선 순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1순위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의 비율이 29%로 다른 동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양을 쌓기 위하여' 14.3%, '취미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14.2%, '보람있는 가정생활을 위하여' 11.4%, '취직이나 부업을 위하여' 10.3%,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내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과를 볼 때, 이는 도내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사회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를 파악

<표 4> 사회교육 불참 이유

구 분	N(%)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103(18.5)
사회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145(26.0)
수업을 따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16( 2.9)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213(38.2)
교육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10( 1.8)
가족이나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2( .4)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12( 2.2)
직장생활과 양립하기 힘들어서	56(10.1)
계	557(100)

<표 5> 사회교육 참여 동기의 우선 순위

변 인	우선 순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139(10.1)	88( 6.4)	68( 5.1)
교양을 쌓기 위하여		196(14.3)	194(14.2)	154(11.6)
취직이나 부업을 위하여		142(10.3)	83( 6.1)	76( 5.7)
직업을 바꾸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22( 1.6)	22( 1.6)	23( 1.7)
취미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195(14.2)	209(15.3)	161(12.2)
보람있는 가정생활을 위하여		156(11.4)	173(12.6)	122( 9.2)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398(29.0)	274(20.0)	188(14.2)
참여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서		14( 1.0)	8( .6)	23( 1.7)
주변사람들이 권해서		4( .3)	19( 1.4)	16( 1.2)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58( 4.2)	103( 7.5)	150(11.3)
시간이 되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좋아서		7( .5)	44( 3.2)	73( 5.5)
좋은 사람들을 사귄 수 있고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어서		42( 3.1)	152(11.1)	270(20.4)
계		1373(100)	1369(100)	1324(100)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함을 암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동기가 교양이나 취미, 여가 활용이라는 비율이 취업이나 부업을 위한 동기보다 더 많은 결과를 볼 때, 아직도 도내 여성사회교육은 자격증이나 직업기술교육보다는 교양, 여가·취미교육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교육실태가 여성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교육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측할 수 있다.

4) 사회교육 만족도

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사회교육 만족도의 모든 하위영역에 대하여 대체로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37.1%와 7.5%로, 사회교육에 참여하였던 응답자의 44.6%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46.8%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의 비율이 각각 3.3%와 10.6%로, 응답자의 13.9%가 강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22.7%이며, 다른 하위영역에 비하여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3.0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교육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강

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의 비율이 9.8%로 다른 하위영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사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긍정적인 평가는 40.9%, 부정적인 평가는 7.2%로, 전반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유

도내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불만족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강사가 기대 이하'라는 이유가 2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자료의 미흡' 21.7%, '교육에 대한 흥미 부족' 21.3%, '교육방법이 비효과적'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가 수강생의 기대에 미흡하여 사회교육에 불만족하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도내 사회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

<표 7> 사회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유

구 분	N(%)
강사가 기대 이하여서	119(23.3)
교육주제와 실제 교육내용이 흥미 없어서	109(21.3)
교육방법이 효과적이 못하여서	75(14.7)
교육자료가 미흡하여서	111(21.7)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미흡하여서	8( 1.6)
교육시설이 낙후되어서	13( 2.5)
주변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2( 0.4)
부대 복지시설이나 탁아보육시설이 없어서	10( 2.0)
수업 및 교육분위기가 산만하여서	9( 1.8)
교육수강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4( 0.8)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8( 1.6)
계	511(100)

<표 6> 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 인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 균
	N(%)	N(%)	N(%)	N(%)	N(%)	
교육프로그램 내용	22( 3.1)	52( 7.4)	315(44.8)	260(37.1)	53( 7.5)	3.39
강사의 전문성	23( 3.3)	75(10.6)	277(39.3)	265(37.6)	65( 9.2)	3.39
교육시설	32( 4.6)	126(18.1)	324(46.6)	171(24.6)	42( 6.0)	3.09
수강료	29( 4.4)	109(16.6)	297(45.3)	156(23.8)	64( 9.8)	3.18
모임횟수	20( 3.0)	87(13.2)	324(49.0)	186(28.1)	44( 6.7)	3.22
전반적으로	8( 1.2)	41( 6.0)	354(51.9)	245(35.9)	34( 5.0)	3.38

러낸 것으로, 사회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강사의 강의내용과 수준을 지적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도내 사회교육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 및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교육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이다.

### 3.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

#### 1) 교육 요구

사회교육 요구를 우선 순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도내 여성들이 수강을 요구하는 교육의 1순위를 내용별로 보면, 자격취득교육이 31.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취미교육 23.4%, 시사·교양교육 16.9%, 직업기술교육 13.6%, 여성의식교육 8.2%, 기초교육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 도내 여성들은 사회교육으로 가장 많이 수강을 요구하는 교육 영역은 교육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취미교육 영역은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의식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수강자들은 여성의식교육보다는 여가취미교육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여성사회교육이 주로 여가취미교육이나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수강을 원하는 교육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 1순위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별로 보면, 시사교양교육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36.7%, 38.0%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직업기술교육, 여가취미교육, 자격취득교육은 20대가 각각 45.6%, 52.0%, 49.4%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현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기술, 자격취득교육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식교육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1.5%와 36.0%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여성사회교육의 주 연령층인 30대와 40대에서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은 것은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시사교양교육, 직업기술교육, 기초교육, 그리고 여성의식교육의 분포가 더 많은 반면,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여가취미교육과 자격취득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여성의 직업기술교육과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고졸 이상의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고졸 이상의 여성은 주로 시사교양교육, 여가취미교육, 자격취득교육, 그리고 기초교육에 고졸 미만 여성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직업기술교육은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각각 49.4%와 40.6%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교육유형에서는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경우가 모든 교육유형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안정이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를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사회교육유형 모두에 대하여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교육기관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 등 접근가능성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8> 사회교육 수강 우선 순위

변인	우선순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시사·교양교육		229(16.9)	264(19.6)	244(18.3)
직업기술교육		184(13.6)	292(21.7)	152(11.4)
여가취미교육		317(23.4)	265(19.7)	401(30.1)
자격취득교육		427(31.5)	295(21.9)	187(14.0)
기초교육		86( 6.4)	118( 8.8)	137(10.3)
여성의식교육		111( 8.2)	111( 8.3)	211(15.8)
계		1354(100)	1345(100)	1332(100)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

변인		교육유형	시사교양교육 N(%)	직업기술교육 N(%)	여가취미교육 N(%)	자격취득교육 N(%)	기초교육 N(%)	여성의식교육 N(%)	$\chi^2$
연령	20대		84(36.7)	84(45.6)	165(52.0)	211(49.4)	35(40.7)	28(25.2)	87.92***
	30대		87(38.0)	68(37.0)	73(23.0)	132(30.9)	19(22.1)	35(31.5)	
	40대		41(17.9)	18( 9.8)	49(15.5)	42( 9.8)	25(29.1)	40(36.0)	
	50대 이상		17( 7.4)	14( 7.6)	30( 9.5)	42( 9.8)	7( 8.1)	8( 7.2)	
결혼 상태	미혼		85(38.3)	82(45.8)	156(50.3)	212(51.2)	37(46.8)	37(34.6)	17.68**
	기혼		137(61.7)	97(54.2)	154(49.7)	202(48.8)	42(53.2)	70(65.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80(35.6)	93(52.8)	135(45.0)	192(46.6)	38(45.2)	63(58.3)	20.01***
	고졸 이상		145(64.4)	83(47.2)	165(55.0)	220(53.4)	46(54.8)	45(41.7)	
취업 여부	취업		155(72.1)	83(49.4)	171(61.3)	219(55.2)	51(62.2)	67(69.1)	28.54***
	비취업		60(27.9)	85(50.6)	108(38.7)	178(44.8)	31(37.8)	30(30.9)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33(14.4)	36(19.6)	48(15.1)	74(17.3)	13(15.1)	17(15.3)	24.28*
	101-200만원		59(25.8)	52(28.3)	72(22.7)	126(29.5)	21(24.4)	31(27.9)	
	201-300만원		31(13.5)	8( 4.3)	36(11.4)	33( 7.7)	9(10.5)	18(16.2)	
	301만원 이상		106(46.3)	88(47.8)	161(50.8)	194(45.4)	43(50.0)	45(40.5)	
거주 지역	제주시		119(52.4)	124(69.3)	186(60.4)	239(56.9)	41(48.2)	46(41.8)	36.34***
	서귀포시		48(21.1)	25(14.0)	47(15.3)	62(14.8)	18(21.2)	20(18.2)	
	북제주군		37(16.3)	18(10.1)	48(15.6)	78(18.6)	18(21.2)	24(21.8)	
	남제주군		23(10.1)	12( 6.7)	27( 8.8)	41( 9.8)	8( 9.4)	20(18.2)	

주) \* P<0.05, \*\* P<0.01, \*\*\* P<0.001.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사교양교육에 대한 요구는 20대, 30대, 기혼, 고졸 이상, 취업, 가계소득이 301만원 이상,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더 많았다.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는 20대, 기혼, 고졸 미만, 비취업, 301만원 이상의 가계소득,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여가취미교육, 자격취득, 기초교육에 대한 요구는 20대, 고졸 이상, 취업, 301만원 이상의 가계소득,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30대, 40대, 기혼, 고졸미만, 취업, 301만원 이상의 가계소득,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교육 요구 기관

사회교육 요구 기관을 우선 순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사회교육요구 기관을 교육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사교양교육은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25.9%로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12.1%, 방송국이나 언론사 12%, 행정기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술교육은 직업훈련원에서 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27.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학원 24.3%,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 12.7%, YWCA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취미교육은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31.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센터/박물관/문화원 18.7%, 민간단체/사회복지단체 12.1%, YWCA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교육은 전문학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회관/여성교육문화센터 10.7%, 직업훈련원 10.5%, 행정기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은 여성회관/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16.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학원 12.6%, 대학평

〈표 10〉 사회교육유형별 수강을 원하는 기관

기 관	교육유형	시사교양교육 N(%)	직업기술교육 N(%)	여가취미교육 N(%)	자격취득교육 N(%)	기초교육 N(%)	여성의식교육 N(%)
행정기관		96( 9.1)	45( 4.4)	18( 1.7)	70( 6.7)	72( 7.8)	23( 2.3)
여성회관/여성교육문화센터		274(25.9)	129(12.7)	336(31.8)	112(10.7)	150(16.3)	356(35.5)
민간단체/사회복지단체		75( 7.1)	39( 3.8)	128(12.1)	42( 4.0)	63( 6.8)	193(19.3)
대학사회(평생)교육원		128(12.1)	40( 3.9)	23( 2.2)	59( 5.7)	99(10.8)	43( 4.3)
문화센터/박물관/문화원		92( 8.7)	18( 1.8)	197(18.7)	13( 1.2)	58( 6.3)	29( 2.9)
전문학원		28( 2.6)	247(24.3)	50( 4.7)	459(44.0)	116(12.6)	11( 1.1)
사회복지관		15( 1.4)	19( 1.9)	41( 3.9)	21( 2.0)	47( 5.1)	21( 2.1)
YWCA		30( 2.8)	60( 5.9)	111(10.5)	48( 4.6)	35( 3.8)	101(10.1)
TV, 라디오/방송강의		86( 8.1)	10( 1.0)	18( 1.7)	21( 2.0)	61( 6.6)	18( 1.8)
기업체연수원		13( 1.2)	59( 5.8)	3( 0.3)	30( 2.9)	20( 2.2)	7( 0.7)
여성개발원		31( 2.9)	15( 1.5)	30( 2.8)	17( 1.6)	37( 4.0)	127(12.7)
자녀의 학교/지역내 학교		14( 1.3)	6( 0.6)	15( 1.4)	8( 0.8)	62( 6.7)	9( 0.9)
종교시설		2( 0.2)	2( 0.2)	4( 0.4)		2( 0.2)	2( 0.2)
마을회관		4( 0.4)	6( 0.6)	18( 1.7)	3( 0.3)	14( 1.5)	7( 0.7)
농협		5( 0.5)	4( 0.4)	11( 1.0)	4( 0.4)	6( 0.7)	7( 0.7)
농촌지도소		2( 0.2)	14( 1.4)	13( 1.2)	4( 0.4)	8( 0.9)	4( 0.4)
직장		32( 3.0)	14( 1.4)	29( 2.7)	18( 1.7)	45( 4.9)	24( 2.4)
방송국/언론사		127(12.0)	13( 1.3)	9( 0.9)	5( 0.5)	16( 1.7)	18( 1.8)
직업훈련원		3( 0.3)	278(27.3)	1( 0.1)	109(10.5)	9( 1.0)	2( 0.2)
계		1057(100)	1018(100)	1055(100)	1043(100)	920(100)	1002(100)

생교육원 10.8%, 행정기관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식교육은 여성회관/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35.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단체/사회복지단체 19.3%, 여성개발원 12.7%, YWCA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교육 중 시사교양교육, 여가취미교육, 기초교육, 여성의식교육을 가장 받기 원하는 기관은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기술교육은 직업훈련원, 자격취득교육은 전문학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도내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 사회교육에 대한 운영과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여성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과 여성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양적·질적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향후 사회교육 참여를 원하는 정도

향후 사회교육 참여를 원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앞으로 사회교육에 참여를 '절실히 원한다'와 '약간 원한다'의 비율이 각각 35.3%와 53.7%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89%로 나타나, 도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앞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사회교육 참여 여부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2〉과 같다. 척도는 '절실히 원한다' 5점에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향후 사회교육 참여

〈표 11〉 향후 사회교육참여를 원하는 정도

구 분	N(%)
절실히 원한다	493(35.3)
약간 원한다	750(53.7)
모르겠다	109( 7.8)
별로 원하지 않는다	38( 2.7)
전혀 원하지 않는다	7( .5)
계	1397(100)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앞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향후 사회교육에 참여 여부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여성보다 고졸 이상의 여성이 향후 사회교육 참여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앞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별로 보면, 201-300만원이 다른 소득수준에 비하여 향후 사회교육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회교육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

##### 1) 사회교육방식에 대한 요구

사회교육 방식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도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교육 방식은 실습위주의 교육방식이 44.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강의와 토론 병행의 교육

〈표 13〉 사회교육 방식에 대한 요구

구 분	N(%)
강의위주	37( 2.8)
토론 등 참여중심	147(11.1)
강의와 토론의 병행	444(33.5)
실습위주	587(44.3)
현장참관위주	109( 8.2)
계	1324(100)

〈표 1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향후 사회교육 참여 여부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교육참여 여부		T/ F값
		N	M(SD)	
연령	20대	682	1.85( .74)	5.05***
	30대	418	1.69( .70)	
	40대	227	1.79( .76)	
	50대 이상	70	1.93( .79)	
결혼 상태	미혼	623	1.89( .79)	4.71***
	기혼	722	1.70( .68)	
교육 수준	고졸 미만	628	1.84( .76)	2.64**
	고졸 이상	717	1.74( .71)	
취업 여부	취업	772	1.75( .72)	-2.44**
	비취업	503	1.85( .76)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225	1.77( .76)	6.17***
	101-200만원	376	1.71( .72)	
	201-300만원	141	1.66( .65)	
	301만원 이상	655	1.88( .75)	
거주 지역	제주시	778	1.80( .73)	.96
	서귀포시	230	1.72( .73)	
	북제주군	228	1.80( .74)	
	남제주군	133	1.83( .78)	

주) \*\* P<.01; \*\*\* P<.001.

방식 33.5%, 토론 등 참여중심의 교육방식 11.1%, 현장참관위주의 교육방식 8.2%, 강의위주의 교육방식 2.8% 등의 순으로 교육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내 여성들은 과거 강의중심의 기관 및 단체 또는 강일자 중심의 사회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습위주의 교육수혜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회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

사회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도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토요일 오후로 26.5%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저녁 26.4%, 오전 23%, 오후 18.2%, 일요일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들이 대부분 사회교육을 원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나 저녁시간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들의 가정내의 시간제약을 보

〈표 14〉 사회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

구 분	N(%)
오전	310(23.0)
오후	246(18.2)
저녁	356(26.4)
토요일 오후	358(26.5)
일요일	79( 5.9)
계	1349(100)

여준 결과이다.

사회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사회교육시간에 대한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저녁으로 62.4%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전은 24.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0대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전으로 48.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저녁은 21.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40대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전으로 22.9%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일요일은 8.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토요일 오후로 5.6%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저녁은 3.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저녁으로 64.7%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전은 20.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혼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전으로 79.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저녁은 35.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후로 60.9%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저녁은 3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고졸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저녁으로 6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후는 39.1%로 가장 낮

〈표 1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시간 요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오전 N(%)	오후 N(%)	저녁 N(%)	토요일 오후 N(%)	일요일 N(%)	$\chi^2$
연령	20대	77(24.8)	119(48.4)	222(62.4)	183(51.1)	46(58.2)	117.76***
	30대	149(48.1)	60(24.4)	75(21.1)	105(29.3)	23(29.1)	
	40대	71(22.9)	51(20.7)	46(12.9)	50(14.0)	7( 8.9)	
	50대 이상	13( 4.2)	16( 6.5)	13( 3.7)	20( 5.6)	3( 3.8)	
결혼 상태	미혼	63(20.9)	97(40.9)	222(64.7)	164(47.5)	43(55.1)	130.65***
	기혼	239(79.1)	140(59.1)	121(35.3)	181(52.5)	35(44.9)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58(51.8)	143(60.9)	135(39.0)	151(44.8)	34(44.2)	30.32***
	고졸 이상	147(48.2)	92(39.1)	211(61.0)	186(55.2)	43(55.8)	
취업 여부	취업	66(23.6)	118(52.9)	253(76.4)	240(74.1)	53(72.6)	226.79***
	비취업	214(76.4)	105(47.1)	78(23.6)	84(25.9)	20(27.4)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54(17.4)	28(11.4)	62(17.4)	57(15.9)	19(24.1)	27.53**
	101-200만원	104(33.5)	66(26.8)	76(21.3)	106(29.6)	14(17.7)	
	201-300만원	32(10.3)	27(11.0)	36(10.1)	34( 9.5)	6( 7.6)	
	301만원 이상	120(38.7)	125(50.8)	182(51.1)	161(45.0)	40(50.6)	
거주 지역	제주시	210(68.9)	102(42.0)	197(56.1)	198(57.4)	47(60.3)	54.02***
	서귀포시	49(16.1)	51(21.0)	60(17.1)	48(13.9)	11(14.1)	
	북제주군	29( 9.5)	48(19.8)	63(17.9)	64(18.6)	14(17.9)	
	남제주군	17( 5.6)	42(17.3)	31( 8.8)	35(10.1)	6( 7.7)	

주) \*\* P<.01; \*\*\* P<.001.



은 분포를 보였다.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저녁으로 76.4%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전은 23.6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비취업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전으로 76.4%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저녁은 23.6%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가계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일요일이 24.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후는 11.4%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101-200만원의 경우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전으로 33.5%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일요일은 17.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201-300만원의 경우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후로 1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일요일은 7.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01만원 이상의 경우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저녁으로 51.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전은 38.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전으로 68.9%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후는 4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후로 21%의 분포를 보인 반면, 토요일 오후는 13.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후로 19.8%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전은 9.5%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 시간은 오후로 17.3%의 분포를 보인 반면, 오전은 5.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 사회교육 후 인정방법에 대한 요구

사회교육 후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도내 여성들이 사회교육을 통하여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격증으로 57.7%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가 22.7%, 수료증을 원하는 경우가 10.5%, 학교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가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도

<표 16> 사회교육 후 인정방법에 대한 요구

구 분	N(%)
학교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 인정	126( 9.1)
자격증	800(57.7)
수료증	146(10.5)
교육만으로 만족	314(22.7)
계	1386(100)

내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획득하기를 원하였다.

사회교육 후 인정방법에 대한 요구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결혼상태, 취업여부,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교육 후 인정에 대한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격증으로 55.5%의 분포를 보인 반면,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는 33.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0대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으로 32.5%의 분포를 보인 반면, 수료증은 2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40대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료증으로 28.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은 10.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료증으로 8.9%의 분포를 보인 반면, 자격증은 3.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으로 52.1%의 분포를 보인 반면,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는 33.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혼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로 66.3%의 분포를 보인 반면,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은 47.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로 71.2%의 분포를 보인 반면, 졸업장과 동일한 자

〈표 1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 후 인정 요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	자격증	수료증	교육만으로 만족	x <sup>2</sup>
		N(%)	N(%)	N(%)	N(%)	
연령	20대	67(53.2)	444(55.5)	54(37.0)	106(33.8)	102.46***
	30대	41(32.5)	245(30.6)	38(26.0)	93(29.6)	
	40대	13(10.3)	86(10.8)	41(28.1)	88(28.0)	
	50대 이상	5( 4.0)	25( 3.1)	13( 8.9)	27( 8.6)	
결혼 상태	미혼	63(52.1)	394(50.8)	52(37.7)	102(33.7)	31.49***
	기혼	58(47.9)	381(49.2)	86(62.3)	201(66.3)	
교육 수준	고졸 미만	61(50.8)	348(44.7)	72(51.4)	147(49.0)	3.90
	고졸 이상	59(49.2)	430(55.3)	68(48.6)	153(51.0)	
취업 여부	취업	59(56.2)	419(56.4)	82(62.1)	203(71.2)	19.88***
	비취업	46(43.8)	324(43.6)	50(37.9)	82(28.8)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21(16.7)	139(17.4)	23(15.8)	41(13.1)	13.54
	101-200만원	32(24.6)	218(27.3)	38(26.0)	86(27.4)	
	201-300만원	13(10.3)	64( 8.0)	21(14.4)	43(13.7)	
	301만원 이상	61(48.4)	379(47.4)	64(43.8)	144(45.9)	
거주 지역	제주시	68(55.3)	478(60.9)	73(50.7)	150(48.9)	26.22***
	서귀포시	18(14.6)	126(16.1)	20(13.9)	60(19.5)	
	북제주군	28(22.8)	109(13.9)	29(20.1)	66(21.5)	
	남제주군	9( 7.3)	72( 9.2)	22(15.3)	31(10.1)	

주) \*\*\* P<.001.

격인정은 56.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비취업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으로 43.8%의 분포를 보인 반면,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는 28.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격증으로 60.9%의 분포를 보인 반면,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는 48.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교육만으로 만족하다는 경우로 19.5%의 분포를 보인 반면, 수료증은 13.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으로 22.8%의 분포를 보인 반면, 자격증은 13.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회교육 후 가

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료증으로 15.3%의 분포를 보인 반면, 졸업장과 동일한 자격인정은 7.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 4) 사회교육 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요구

사회교육 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도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방송매체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51.1%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편 25%,

〈표 18〉 사회교육 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요구

구분	N(%)
우편	339(25.0)
방송매체	695(51.1)
신문광고	180(13.3)
지역정보지	144(10.6)
계	1358(100)

신문광고 13.3%, 지역정보지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내 여성들은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하였다. 이는 정보에 대한 교육수혜자의 접근용이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요구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방송대체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54.8%의 분포를 보인 반면,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은 4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0대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34.4%의 분포를 보인 반면, 방송매체를 통한 전달방식은 27.5%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40대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

식은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21.5%의 분포를 보인 반면, 방송매체를 통한 전달방식은 14.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6.9%의 분포를 보인 반면, 방송매체를 통한 전달방식은 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방송대체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51.2%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식은 41.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혼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63.7%의 분포를 보인 반면, 방송매체를 통한 전달방식은 48.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미만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61.7%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

<표 1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정보 전달방식 요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우 편	방송매체	신문광고	지역정보지	χ <sup>2</sup>
		N(%)	N(%)	N(%)	N(%)	
연령	20대	159(46.9)	381(54.8)	75(41.7)	59(41.0)	23.17**
	30대	113(33.3)	191(27.5)	62(34.4)	44(30.6)	
	40대	54(15.9)	102(14.7)	37(20.6)	31(21.5)	
	50대 이상	13( 3.8)	21( 3.0)	6( 3.3)	10( 6.9)	
결혼 상태	미혼	147(44.7)	(51.2)	72(41.1)	49(36.3)	14.07**
	기혼	182(55.3)	334(48.8)	103(58.9)	86(63.7)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67(51.2)	306(45.1)	58(32.8)	87(61.7)	29.90***
	고졸 이상	159(48.8)	372(54.9)	119(67.2)	54(38.3)	
취업 여부	취 업	175(57.2)	390(61.2)	107(63.7)	74(56.5)	3.03
	비취업	131(42.8)	247(38.8)	61(36.3)	57(43.5)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54(15.9)	118(17.0)	33(18.3)	18(12.5)	4.23
	101-200만원	85(25.1)	180(25.9)	47(26.1)	41(28.5)	
	201-300만원	31( 9.1)	71(10.2)	19(10.6)	18(12.5)	
	301만원 이상	169(49.9)	326(46.9)	81(45.0)	67(46.5)	
거주 지역	제 주 시	177(52.8)	397(57.6)	122(68.2)	62(43.7)	33.54***
	서귀포시	64(19.1)	106(15.4)	23(12.8)	34(23.9)	
	북제주군	69(20.6)	114(16.5)	20(11.2)	22(15.5)	
	남제주군	25( 7.5)	72(10.4)	14( 7.8)	24(16.9)	

주) \*\* P<.01; \*\*\* P<.001.

식은 32.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고졸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67.28%의 분포를 보인 반면,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은 38.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68.2%의 분포를 보인 반면,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은 43.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23.9%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식은 12.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우편을 통한 전달방식으로 20.6%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신문광고를 통한 전달방식은 11.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남제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회교육정보 전달방식은 지역정보지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16.9%의 분포를 보인 반면, 우편을 통한 전달방식은 7.5%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 5)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에 대한 요구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도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정기모임으로 33.4%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정주기의 특강 29.9%, 사회교육기관의 소식지 21.5%, 그리고 심화과정 15.2%의 순으로 사회교육 후 지도를 요구하였다. 도내 여성들은 사회교육을 수강한 후 정기적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

<표 20> 사회교육 후 지도유형에 대한 요구

구 분	N(%)
정기모임	436(33.4)
일정 주기의 특강	391(29.9)
사회교육기관의 소식지	281(21.5)
심화과정	198(15.2)
계	1306(100)

타났다.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에 대한 요구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소득에 따라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에 대한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정기모임으로 59.6%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일정주기의 특강은 42.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일정주기의 특강과 기관의 소식지로 각각 33.5%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기모임은 26.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일정주기의 특강으로 20.2%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기모임은 9.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일정주기의 특강으로 4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심화과정은 0.5%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정기모임으로 56.1%의 분포를 보인 반면, 기관의 소식지는 37.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기관의 소식지로 62.8%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기모임은 43.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정기모임으로 51.1%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심화과정은 27.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고졸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심화과정으로 72.2%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기모임은 48.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가계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심화과정으로 18.7%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일정주기의 특강과 기관의 소식지는 각각 15.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101-200만원의 경우 가장 많이 요구하

<표 2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 후 지도유형 요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정기모임	일정주기의 특강	기관의 소식지	심화과정	χ <sup>2</sup>
		N(%)	N(%)	N(%)	N(%)	
연령	20대	260(59.6)	165(42.2)	120(42.7)	104(52.5)	44.02***
	30대	116(26.6)	131(33.5)	94(33.5)	56(28.3)	
	40대	43( 9.9)	79(20.2)	56(19.9)	37(18.7)	
	50대 이상	17( 3.9)	16( 4.1)	11( 3.9)	1( .5)	
결혼 상태	미혼	238(56.1)	153(39.8)	102(37.2)	96(49.2)	32.67***
	기혼	186(43.9)	231(60.2)	172(62.8)	99(50.8)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16(51.1)	188(49.0)	133(48.2)	54(27.8)	31.95***
	고졸 이상	207(48.9)	196(51.0)	143(51.8)	140(72.2)	
취업 여부	취업	230(57.1)	218(60.7)	148(60.4)	124(64.9)	3.46
	비취업	173(42.9)	141(39.3)	97(39.6)	67(35.1)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76(17.4)	60(15.3)	43(15.3)	37(18.7)	24.71**
	101-200만원	100(22.9)	103(26.3)	91(32.4)	54(27.3)	
	201-300만원	36( 8.3)	59(15.1)	19( 6.8)	22(11.1)	
	301만원 이상	224(51.4)	169(43.2)	128(45.6)	(42.9)	
거주 지역	제주시	237(54.7)	233(59.9)	146(52.5)	122(61.6)	9.75
	서귀포시	76(17.6)	56(14.4)	49(17.6)	37(18.7)	
	북제주군	76(17.6)	63(16.2)	53(19.1)	24(12.1)	
	남제주군	44(10.2)	37( 9.5)	30(10.8)	15( 7.6)	

주) \*\* P<.01; \*\*\* P<.001.

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기관의 소식지로 32.4%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기모임은 22.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201-300만원의 경우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일정주기의 특강으로 15.1%의 분포를 보인 반면, 기관의 소식지는 6.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01만원 이상의 경우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교육 후 지도 유형은 정기모임으로 51.4%의 분포를 보인 반면, 심화과정은 42.9%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참여 실태와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여성사회교육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내의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도내 여성들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38.3%가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경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이나 단체를 통한 참여와 자발적인 신청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내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볼 때,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고 수강이 가능한 시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한 '사회교육이 있는지 몰라서'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라는 응답의 결과는 사회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의 1순위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내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사회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함을 암시한 결과이다.

넷째, 도내 여성들은 사회교육 만족도의 모든 하위영역에 대하여 대체로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강사가 기대 이하'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내 사회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이다.

다섯째, 도내 여성들이 가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회교육영역은 자격취득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관련 교육기관의 질적 교육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우선 교육수혜자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요구를 병행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내 여성들은 향후 사회교육에 대한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교육의 수강료는 3만원 이하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사회교육 방식은 실습위주의 교육방식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도내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것이 전문강사의 자질의 문제이다. 도내 사회교육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적된 전문인력확보의 문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은행을 보완, 확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강사의 재교육을 통하여 교육 수혜자의 요구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내 여성들이 가장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회교육영역은 교육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며, 더불어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도내 여성들은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여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관련 교육기관들은 여성들에게 열린교육의 장으로서 질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1) 권건일·김인아(1999), 사회교육의 이해: 프로그램 이론과 실제, 양서원.
- 2) 권두승(1991), 한국사회교육의 변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3) 김도수(1994), 사회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4) 김수일(1995), 사회교육방법론, 서울: 박영사.
- 5) 정지웅·김지자(1988), 사회교육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6)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1997), 제주도여성의식조사 보고서.
- 7) \_\_\_\_\_(1998), 제주도여성통계연보.

- 8) \_\_\_\_\_(1999), 제주도여성사회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9) \_\_\_\_\_(1999),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 참여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10) 제주도통계연보(1999), 통계청.
- 11) 최운실 외(1992),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무 제2장관실.
- 12) 최운실 외(1993), 한국사회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탐구, 한국교육개발원.
- 13) 최운실 외(1997), 여성사회교육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정무 제2장관실.
- 14) 최운실 외(1997), 경기여성사회교육요구와 사회교육체계화 방안 연구, 경기도.
- 15) 한국여성개발원(1984), 평생교육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실태조사 연구.
- 16) 한국여성개발원(1995),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17) 한국여성개발원(1998), 여성백서,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 18) 한중상(1987), 사회교육론, 서울: 청아출판사.
- 19) 황종건(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서울: 정민사.